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 측정 도구 개발: Ajzen의 계획된 행위 이론을 기반으로

장숙* · 안혜영**†

*공주정보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교사,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Development of the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 Based on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Sook, Jang* · Hye Young, Ahn**†

*Teacher, Health Nursing Department, Gongju Infomation High School,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easurement scale that explains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 based on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nd verify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Methods: The basic items were modified by selecting 41 items of middle school student aggressive behavior measurement scale. Through the content validity test, 63 first preliminary question items and 42 second preliminary question items were developed. The participants were 286 middle school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validity, correlation coeffici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Cronbach α .

Results: In this study, it was proved that the most important variable showing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was aggressive regulation intention. This study was composed of 4 factors for direct measurement(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ehavior intention) and 5 factors for indirect measurement(behavioral beliefs, outcome evaluation, normative beliefs, motivation to comply, control beliefs). The total variance was 65.4% and 67.6%, respectively, and the reliability was .90, .82. Finally, 42 questions were developed.

Conclusion: We found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was valid and reliable as a

접수일 : 2020년 08월 07일, 수정일 : 2020년 08월 20일, 채택일 : 2020년 08월 24일

교신저자 : 안혜영(34824,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번길 77)

Tel: 042-259-1715, Fax: 042-259-1709, E-mail: ahanaya@eulji.ac.kr

measure scale to explain the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 based on TPB.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scale could be a useful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the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

Key words: Aggression, Behavior, Measurement, Middle School Student, Regulation

I. 서론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행동반응은 감소하나,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며, 좀 더 의도적이며 보복적으로 감추어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준다(이은아와 천성문, 2013). 특히 학령기의 공격성은 신체적인 공격성으로 발현 되었다가 청소년 시기에는 공격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Wenar et al., 2011). 또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문제의 하나로 비행을 들 수 있겠는데, 비행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공격성이고(Dryfoos, 1988; 이애령, 2004), 청소년은 공격성이 높을수록 비행 행동이 증가하고, 비행 행동을 많이 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임진섭, 2009). 교육부가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2012)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58%가 초등학생 때 최초로 폭력 가해를 하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전체 심의건수 중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9%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학교 차원에서의 보호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중학생의 학교 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숙정 등, 2015). 이는 폭력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초기 청소년 단계에서 발현된 공격성은 성인기에 약물 사용, 비행, 만성적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Farrell et al., 2005; 서미정, 2009).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 시기부터 공격성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연계 교육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격성이란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특히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은 행동의 도구적 혹은 운동적 요소로서 타인에게 해를 가해 상처를 입히려는 경향성이다(Buss & Perry, 1992). 또한 공격성은 관찰 가능한 행동과 의도, 행동결과, 사회적인 가치 등의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판단되는 행동이다(Bandura, 1973). 이에 Coccarol 등(2016)은 공격적인 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정서조절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조절하고(이하연과 박주희, 2014),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 및 분노감이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보고가 있다(이아영과 김유미, 2015). 이는 정서조절이 공격성 감소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며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정서를 바로잡고 최소화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대하는 정서 상태로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Mayer & Salovey, 1997). 또한 조절이란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적절하게 자신의 상태를 조절하는 과정으로 내적 상태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까지의 모든 정서적 과정을 포괄하는 용어라 하였다(Lafreniere et al., 2002).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발달단계로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유발된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서조절의 향상은 중학생의 공격성을 예방 가능하게 만들며, 또래 관계의 갈등적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전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공격성은 개인의 내·외적인 요소의 상호 작용으로 발달하는 심리적 특성이므로 공격성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인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허정목과 권민균, 2006). 중학생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인의 내·외적인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는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이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정서조절 혹은 조절이라는 단어를 혼합하여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에 공격조절행위라는 단어를 적용하였다. 공격조절행위란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갈등상황에서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자신의 상태와 행동을 적절하게 감독하고 통제하는 행위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계획된 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와 공격조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학생의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계획된 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한다면, 공격조절의도가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공격을 조절할 수 있는 행위를 중학생 자신들이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실제로 공격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가정이 타당할 경우, 중학생이 공격조절의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근거를 얻게 된다.

현재까지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을 기반으로 공격조절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모두를 포함하여 공격조절의도와와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을 기반으로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는 폭력적 PC게임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적 특성, 자기 효능감, 공격의도, 공격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공격 행동을 측정하여 변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고

자 하는 연구(김지환, 2001; 김지환, 2005) 등이 있으나, 도구들의 개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도구의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격조절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공격조절행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측정방법(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공격조절의도)과 간접적인 측정방법(행위 신념, 결과 평가, 규범적 신념, 순응 동기, 통제 신념)의 도구들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를 합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의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및 내용

이론의 설문 지침(Ajzen, 2005)에 따라 먼저 TACT 요소를 정의하면, 표적(target)은 청소년이며, 행동(action)은 '내가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한 대치고 싶은 걸 참는 것은?'으로, 상황(context)은 '나를 놀릴 때, 나도 모르게 친구가 내 흉을 보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로 설계하였다. 시간 요소(time element)는 최근의 경험 빈도를 측정해야 하지만(손영곤과 이병관, 2012), 공격조절행위라는 추

상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평소'로 설계하였다.

1) 문항 개발 : 기초문항 구성

문항개발은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에 근거하여 도구 개발 과정을 서술한 설문 지침(Francis et al., 2004; Fishbein & Ajzen, 2010)을 준수하여 개발하였으며,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 Marsee(2004) 등이 개발한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PCS), 하문선과 김지현(2013)의 한국판 또래갈등척도(Korean-peer conflict scale, K-PCS)를 기반으로 개발한 장숙과 안혜영(2018)의 청소년의 공격성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변수는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6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4문항, 공격조절의도 10문항의 총 24문항을 기초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변수는 행위신념 4문항, 결과평가 2문항, 규범적 신념 4문항, 순응 동기 4문항, 통제 신념 3문항의 총 17문항을 기초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도구의 정의

- ①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 어떤 상황이든 공격할 수 있는 자신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좋을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거나 그 행위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평가를 의미한다.
- ②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SN) :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공격조절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회적 압력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지각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 공격조절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얼마나 쉽고

어려운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대상자가 공격조절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

- ④ 공격조절의도(behavior intention, BI) :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자신의 상태를 조절하고자 하는 의사정도를 의미한다.
- ⑤ 행위 신념(behavioral beliefs, BB) : 어떤 행위를 수행할 때 특정 결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신념,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으면 그 행동을 수행하는데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뜻을 의미한다.
- ⑥ 결과 평가(outcome evaluation, OE) : 특정 결과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⑦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 NB) : 자신의 주관적 규범을 구성하게 해주는 특정 사람들에 대한 개별 신념들을 의미한다.
- ⑧ 순응 동기(motivation to comply, MC) : 자신이 이 특정 사람들의 생각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따르려 하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 ⑨ 통제 신념(control beliefs, CB) : 대상자가 특정행위에 느끼는 어려움의 개별 신념을 의미한다.

2) 내용 타당도 검증 : 예비문항 선정

(1) 1차 내용타당도

기초문항으로 선정된 41개의 문항을 아동간호학 교수 1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간호학 전공자 5인, 임상 심리사 1인에게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내용 타당도 문항의 적절성 정도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1점), 약간 적절하지 않다(2점), 약간 적절하다(3점), 매우 적절하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한 결과, CVI 범위는 0.8~1.00이었고,

평균 CVI는 .96이었다. 문항의 Likert 척도는 “5점 척도가 훨씬 대상자가 응답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조언에 따라 대상자가 중학생임을 반영해 공격조절 행위 도구의 척도를 7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또한 ‘~할 것이다’의 미래형 서술형 어미를 가진 공격조절의도 문항을 좀 더 민감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할 의도가 있다’로 서술 어미를 바꾸었다. 연구팀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읽고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주관적 규범 문항과 지각된 행위 통제 문항이 의미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격조절의도 문항과 같이 K-PCS의 하부 요인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게끔 문항을 추가하고 수정하였다. 또한 K-PCS의 하부 요인의 특성에는 들어있지는 않으나 욕설과 관련된 문항을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공격조절의도에 각각 1문항씩 추가하였다.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성된 문항은 직접적인 측정방법에서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6문항, 주관적 규범 11문항, 지각된 행위 통제 11문항, 공격조절의도 11문항을 선정하였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행위 신념 8문항, 결과 평가 4문항, 규범적 신념 4문항, 순응동기 4문항, 통제신념 4문항으로, 총 63개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2) 2차 내용타당도 검증

1차 내용타당도 검증 후 선정된 63개 예비문항으로 아동간호학교수 1인, 도구개발 전문가 1인, 간호학 전문가 4명, 임상 심리사 1인, 정신 전문간호사 1인, 사회 복지사 1인, 정신의학과 의사 1인에게 2차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문항의 적절성과 명확성에 대해서 내용타당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CVI 범위는 0.5~1.00이었고, 평균 CVI는 .858이었다. CVI가 .8이하인 23개 문항은 삭제하였다.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성된 문항은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6문항, 주관적 규범 6문항, 지각된 행위 통제 6문항, 공격조절의도 6문항이

며(총 24문항), 간접적인 측정방법에서는 행위 신념 4문항, 결과평가 2문항, 규범적 신념 4문항, 순응 동기 4문항, 통제 신념은 4문항으로(총 18문항), 최종 42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3. 평가 단계: 최종 문항 확정

예비 문항으로 도구의 구성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1) 구성타당도

구성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확보된 문항을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측정방법에 해당하는 문항과 간접적인 측정방법에 해당하는 문항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성타당도 검정 시 요인적재량이 .40이상이면 유효하다(노경섭, 2019).

2)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정

신뢰도는 구성 타당도를 통하여 확인된 각 변수에 따라 직접적인 측정방법에 따른 문항과 간접적인 측정방법에 따른 문항으로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경우, 이론의 지침에 따라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는 행위신념과 결과평가의 곱으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의 곱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위 통제는 통제신념의 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 지역의 편의표출한 중학교 2곳의 1, 2, 3학년 학생이다.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구한 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

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와 동의, 중도포기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294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8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학년 124명, 2학년 91명, 3학년 71명으로 총 286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측정도구 검증을 위해 문항 수의 5배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노경섭, 2019), 본 연구는 충분한 대상자 수를 확보하였다.

4. 자료분석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검증을 위해 SPSS/WIN 24.0와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수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다. 측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구성 타당도 검사는 Varimax 회전의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고, 모수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χ^2 , 표준평균 제곱 잔차의 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점진적 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 비표준적합지수(non normed fit index, NN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오차 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이용하였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확인을 위해서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고, 더불어 본 조사에서 문항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uttman 반분계수(Guttman' split-half)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E대학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No. IRB 2017-79)을 받았고,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만 14세 이하의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공격조절행위라는 특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비밀보장을 위해 각 설문지마다 봉투로 밀봉하여 수거하였다. 설문내용에 대해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 연구 대상자는 중학생 총 286명으로 1학년 124명(43.4%), 2학년 91명(31.8%), 3학년 71명(24.8%)이었다. 성별은 남학생 118명(41.3%), 여학생 168명(58.7%)이고, 이 중 93%이상은 부모 중의 한 명과는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69명(59.1%)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은 회사원이 103명(36.0%),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106명(37.1%), 경제 상태는 중(51.8%), 상(41.3%), 하(7.0%)로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도구의 타당도 검증

1) 문항분석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선정된 총 42개의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2.48 \pm .85$ 이었고, 개별 문항-전체 문항 간 평균의

상관계수는 p 값이 모두 $<.01$ 이상으로 유의수준에 해당되었으며,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문항이 없어 문항의 변별력을 확인하였다. 도구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rade	middle school 1	124 (43.36)
	middle school 2	91 (31.81)
	middle school 3	71 (24.83)
Gender	male	118 (41.26)
	female	168 (58.74)
Religion	no	169 (59.09)
	christian	70 (24.48)
	catholic	24 (8.39)
	buddhism	22 (7.69)
	others	1 (0.35)
Father job type	no	1 (0.35)
	official	42 (14.69)
	employee	103 (36.01)
	professional position	21 (7.34)
	service	24 (8.39)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4 (1.40)
	personal business	56 (19.58)
	priest	4 (1.40)
others	31 (10.84)	
Mother job type	no	18 (6.29)
	official	22 (7.69)
	employee	32 (11.19)
	professional position	20 (6.99)
	service	43 (15.04)
	housewife	106 (37.06)
	personal business	16 (5.60)
others	29 (10.14)	
Family income	high	118 (41.26)
	average	148 (51.75)
	low	20 (6.99)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scale and K-PCS

Variables	Factors	AB	SN	PBC	BI	K-PCS
		r(ρ)	r(ρ)	r(ρ)	r(ρ)	r(ρ)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scale (direct measure)	AB	1				.01(.850)
	SN	.13(.032)	1			-.31(<.000)
	PBC	.13(.030)	.36(<.001)	1		-.35(<.000)
	BI	.18(.002)	.31(<.001)	.63(<.001)	1	-.38(<.000)
Aggression regulation behavior scale (indirect measure)	AB(BB×OE)	1				-.14(.020)
	SN(NB×MC)	.17(.004)	1			-.15(.010)
	PBC(CB)	.04(.470)	.23(<.001)	1		-.14(.020)
	BI	.21(<.001)	.29(<.001)	.26(<.001)	1	-.38(<.000)

K-PCS= Korean-peer conflict scale; AB=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N= Subjective norm;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I=Behavior intention; BB×OE= Behavioral beliefs × outcome evaluation; NB×MC= Normative beliefs × motivation to comply; CB= Control beliefs

2) 구성타당도 검증 : 탐색적 요인분석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방법을 위한 변수와 간접적인 측정방법을 위한 변수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42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KMO(Kaiser-Meyer-Olkin)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측정변수에 대한 문항은 .864, 간접적인 측정변수에 대한 문항은 .782로 나타났다. 보통 KMO 값이 .5이상이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므로(노경섭, 2019) 본 연구의 표본은 이를 만족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직접적인 측정변수에 대한 문항은 χ^2 가 4392.498(p <.001), 간접적인 측정변수에 대한 문항은 χ^2 가 3389.088(p <.001)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계수의 행렬(correlation matrix)이 대각행렬이면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데, Bartlett 값에서 p <.05 이면 대각행렬(단위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 표본의 수와 변수의 수가 요인분석의 적합한 표본임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의 표본은 KMO 값과 Bartlett 값을 통하여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문항은 계획된 행위 이론(17)을 개념적 기틀로 하여 기초문항 작성시부터 각 문항의 개념이 가정화되어 변수의 수가 정해져 있어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경우, 요인의 수가 공격조절의도,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의 4개 요인으로 정해져 있고, 간접적인 측정 방법 요인의 수는 행위신념과 결과평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통제신념의 5개 요인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측정방법에도 공격조절의도를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측정방법에서 4개 요인, 간접적인 측정방법에서 6개 요인, 최종 10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주성분 분석으로 고유치(eigen value)가 1.0보다 큰 요인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인에 대한 적재량/loading)를 구했을 때, 각 요인에 속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48 ~.89로 권장 기준인 .4보다 크고, 음의 요인 적재량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은 회전 결과 총 분산에 대하여 설명 변량이 1요인 16.5%, 2요인 16.4%, 3요인 16.3%, 4요인 16.2%로

전체 변량의 65.4%를 설명하였다. 이 직접적인 측정 방법으로 개발된 문항들은 정확하게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의 구성 개념과 일치되어 포함되었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은 회전 결과 총 분산에 대하여 설명변량이 1요인 16.7%, 2요인 12.8%, 3요인 12.3%, 4요인 11.1%, 5요인 7.6%, 6요인 7.0%로 전체 변량의 67.6%를 설

명해 주었다. 이 또한 Ajzen(2005)의 계획된 행위 이론의 구성 개념과 일치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직접적인 측정방법과 간접적인 측정방법 모두 제1요인인 공격조절의도가 분산의 양과 설명변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3, 4).

<Table 3> Factor analysis of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scale(direct measure items)

(N=286)

Factor	Item	Item content	Factor loading			
			F1	F2	F3	F4
BI	6	intend to bear that want to fight	.81	.06	.10	.28
	3	intend to bear that want to tease	.80	.02	.09	.27
	7	intend to bear that want to find fault with others behind his back	.74	.06	.08	.35
	5	intend to bear that want to swear word	.74	.08	.13	.31
	1	intend to bear that want to hit	.72	.11	.11	.16
	8	intend to bear that want to leave out	.71	.07	.15	.20
AB	3	be stupid - be wise	.05	.85	.06	-.02
	1	dislike - like	.10	.84	.04	.14
	2	disagree - agree	.10	.81	.02	.07
	6	don't require - require	.12	.80	.13	-.10
	7	valueless - value	.02	.80	.12	-.06
5	be not related to me - be related to me	-.01	.72	-.11	.21	
SN	3	should not tease	.08	.04	.83	.09
	6	should not fight	.09	.08	.82	.20
	5	should not swear word	.07	.10	.78	.12
	8	should not leave out	.17	.02	.77	.15
	7	should not find fault with others behind his back	.17	.03	.74	.15
1	should not hit	.04	-.01	.74	.06	
PBC	7	may not find fault	.21	.07	.12	.84
	6	may not fight	.28	.07	.15	.81
	5	may not swear word	.34	.02	.08	.74
	8	may not leave out	.22	.00	.22	.72
	3	could not tease	.27	-.01	.13	.69
1	could not hit	.26	.09	.16	.61	
Eigen value			3.95	3.94	3.92	3.89
Explained variance (%)			16.47	16.43	16.32	16.21
Accumulative variance (%)			16.47	32.90	49.22	65.43
Cronbach's α			Total = .90	.89	.89	.89
Kaiser-Meyer-Olkin (KMO)= .86, $\chi^2=4392.50$, $p<.001$						
NFI=.813, IFI=.860, TLI=.842, CFI=.859, SRMR=.056						

BI=Behavior intention; AB=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N= Subjective norm;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able 4〉 Factor analysis of aggressive regulation behavior scale(indirect measure items)

(N=286)

Factor	Item	Item content	Factor loading					
			F1	F2	F3	F4	F5	F6
BI	6	intend to bear that want to fight	.85	.06	.04	.10	.12	.01
	7	intend to bear that want to find fault with others behind his back	.82	.21	.01	.06	-.04	.01
	3	intend to bear that want to tease	.82	.06	.10	.12	.08	.03
	5	intend to bear that want to swear word	.81	.13	.07	.01	.13	.10
	8	intend to bear that want to leave out	.76	.04	.07	.08	-.03	-.13
	1	intend to bear that want to hit	.71	-.01	.14	.08	.15	.05
BB	3	if you tolerate it without looking at it, you will not get stress	.09	.89	.03	.05	.02	.02
	4	even if you fight without fighting or taking a friend, stress will not build up	.12	.88	.03	.04	.03	-.02
	2	even if you do not fight or take away your friends, you will not be disturbed	.11	.84	.09	.10	.06	-.11
	1	even if you do not fight or see it, you will not be disturbed	.09	.82	.04	.06	.03	-.02
NB	2	my mother agrees that I will endure the anger.	.14	.00	.88	.04	-.02	-.03
	1	my father agrees that I will endure angry attacks.	.15	.04	.88	.01	.06	.01
	3	my homeroom teacher agrees that I will tolerate anger.	.06	.01	.85	.12	-.05	.04
	4	friends approve that I will endure the anger.	.02	.13	.77	.08	.03	.12
MC	2	usually what about my mother says	.05	.09	.07	.86	.09	-.03
	1	usually what about my father says	.09	.06	.08	.84	.07	-.07
	3	usually what about my homeroom teacher says	.03	.04	.06	.79	.11	.02
	4	usually what about my friend says	.20	.03	.03	.58	.20	.00
CB	3	if I get angry, thinking of someone is hurttable are a help to control my anger	.05	.10	.04	.21	.73	.07
	4	watches me are a help to control my anger	.02	-.03	.09	.00	.73	-.02
	2	school regulations (suspension, corporal punishment) are a help to control my anger	.10	.02	-.12	.12	.61	.03
	1	of my parents advice are a help to control my anger	.27	.08	.02	.33	.48	-.15
OE	2	getting a lot of stress is bad	-.01	-.02	.06	-.03	-.01	.89
	1	getting be adjected is bad	.06	-.07	.06	-.04	.02	.88
Eigen value			4.02	3.08	2.97	2.67	1.81	1.67
Explained variance (%)			16.73	12.81	12.36	11.12	7.55	6.98
Accumulative variance (%)			16.73	29.54	41.91	53.02	60.57	67.55
Cronbach's α			Total = .82	.89	.89	.88	.81	.76
Kaiser-Meyer-Olkin (KMO)= .78, $\chi^2=3389.09$, $p<.001$								
NFI=.810, IFI=.844, TLI=.814, CFI=.843, SRMR=.066								

BI= Behavior intention; BB= Behavioral beliefs; NB= Normative beliefs; MC= Motivation to comply; CB= Control beliefs; OE= Outcome evaluation

3) 구성타당도 검증 : 확인적 요인분석

(1) 타당성 분석

(문항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격조절행위 측정도구 문항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AMOS를 이용하여 42개 문항에 대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문항의 수렴타당도는 문항과 문항이 속한 하부요인에 대한 상관계수가 .5 이상이어야 하는데(노경섭, 2019), 본 연구의 직접적인 측정방법은 .62~.86,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43~.98로 나타나 문항에 대한 수렴타당도가 대체적으로 충족되었다. 문항에 대한 판별타당도는 하부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3정도의 수준에서 계수들이 구성되면 적합하

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직접적인 측정방법은 .13~.69,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04~.38로 나타나 하부요인 간의 상관계수인 판별타당도는 부분적으로 확보되었다(Figure 1). 모델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측정방법에서는 $\chi^2 = 846.74(p < .001)$ 로 유의하였는데,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결과이다(노경섭, 2019). 표준평균 제곱 잔차의 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은 .056로 적절하였고, 기초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80, 점진적 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IFI)는 .860, 비표준적합지수(non normed fit index, NNFI)는 .842,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859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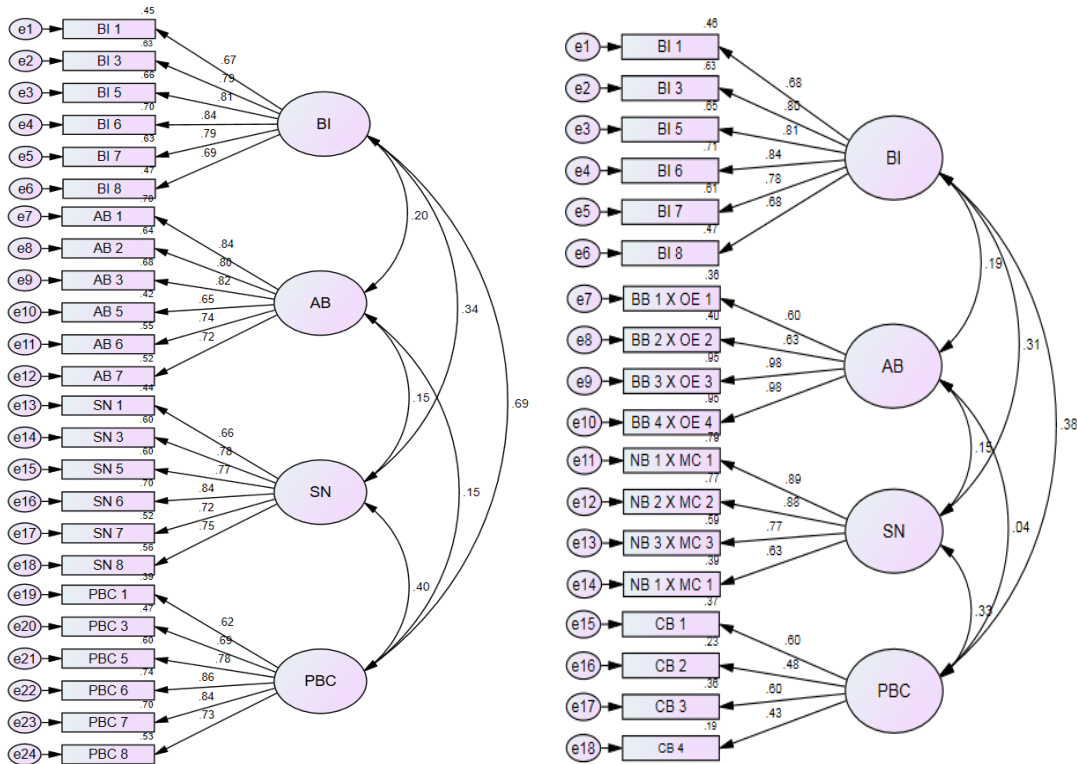


Figure 1-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direct measure Figure 1-B.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direct measure
 BI= Behavior intention; AB=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SN= Subjective norm;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B×OE= Behavioral beliefs×outcome evaluation; NB×MC= Normative beliefs×motivation to comply; CB= Control beliefs

Figur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direct measure (Left) and indirect measure (Right)

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알려진 오차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은 .093으로 적절하였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에서는 $\chi^2=506.57(p<.001)$, SRMR .050로 적절하였고, GFI는 .874, IFI는 .917, NNFI는 .902, CFI는 .916, RMSEA는 .06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수들은 .8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함을 의미하는데(노경섭, 2019), 본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2) 집중타당도

검증에 필요한 조건은 비표준화 λ (람다)의 C.R. (critical ratio) 값이 $p<.05$ 기준에서 1.96이상이어야 한다(노경섭, 2019). 본 측정 도구의 직접적인 측정방법과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이 조건에 만족하여 수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값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화 λ (람다) 값이 .5이상(.7이상이면 바람직함),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5이상,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이 .7 이상이어야 한다(27). 본 연구 결과, 직접적인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표준화 λ 값 .646~.862, 평균분산추출 .53~.60, 개념신뢰도 .87~.90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간접적인 측정방법은 표준화 λ 값이 .38~.98, 평균분산추출 값이 .26~.62, 개념 신뢰도가 .57~.87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때, 통계 신념 도구를 제외하면, 표준화 λ 값이 .50~.98, 평균분산추출 값이 .54~.62, 개념신뢰도가 .70~.87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게 되어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게 된다.

4) 준거 타당도

연구 도구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측정 도구와 하문선과 김지현(2013)이 개발한 공격성 도구(K-PCS)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주관적 규범($r=-.31$,

$p<.001$), 지각된 행위 통제($r=-.35$, $p<.001$), 공격조절의도($r=-.38$, $p<.001$),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r=-.14$, $p=.02$), 주관적 규범($r=-.15$, $p=.01$), 지각된 행위 통제($r=-.14$, $p=.02$)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공격조절행위(바람직한 행동)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를 적절하게 측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거타당도를 확보하였다(Table 2).

3. 도구의 신뢰도 검증

1) 내적 일관성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 값을 측정된 결과, 직접적인 측정 방법에서는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0이고, 문항 제거 시 Cronbach's α 값의 변화는 .89~.90으로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아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저하시키는 문항은 없었다.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직접적인 측정방법에서는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89, 주관적 규범 .89, 지각된 행위 통제 .89, 공격조절의도 .89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에서는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2이고, 문항 제거 시 Cronbach's α 값의 변화는 .81~.83으로 결과 평가 2개 문항의 결과 값이 .82보다 높았으나, 요인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행위신념×결과평가) .90, 주관적 규범(규범적 신념×순응동기) .87, 지각된 행위통제(통제 신념) .61로 나타났다(Table 3, 4).

2) 반분 신뢰도

문항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uttman 반분계수(Guttman' split-half)값을 측정된 결과, 직접

적인 측정방법에서는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92, 주관적 규범 .85, 지각된 행위 통제 .84, 공격조절의도 .88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에서는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행위신념×결과평가) .75, 주관적 규범(규범적 신념×순응동기) .84, 지각된 행위통제(통제 신념) .52로 나타났다.

4. 최종 개발된 공격조절행위 측정도구

본 연구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변수는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6문항, '주관적 규범' 6문항, '지각된 행위 통제' 6문항, '공격조절의도' 6문항으로 총 4개의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간접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변수는 '행위 신념' 4문항, '결과 평가' 2문항, '규범적 신념' 4문항, '순응 동기' 4문항, '통제 신념' 4문항으로 총 5개의 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42문항의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본 도구는 각 요인 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1~3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총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평균 범위는 2.48~4.36점, 표준 편차 범위는 0.85~1.22점이었다.

IV. 논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측정도구는 총 42개 문항의 자가 보고형 질문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문항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변수(4개요인)에 대한 총 분산 설명력은 65.4%,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변수(6개요인-공격조절의도 포함)에 대한 총 분산 설명력은 67.6%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 측정도구(박인혜와 김윤경, 2010)에서 직접적인 측정방법 78.7%, 간접적인 측정방법 67.9%의 설명력과 중학생의 공격성 측정도구 개발 연구(장숙과 안혜영, 2018)의 직접적인 측정방법 63.6%, 간접적인 측정방법 64.7%의 설명력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가 각 변수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공격성 관련 도구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측정이 제한점으로 대두되었는데, 본 연구도구는 감정을 측정하기에 용이한 긍정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라 그 의미가 크다.

각 요인 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는 중학생이 공격조절행위에 대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직접적인 측정방법은 고유치 3.94로 전체 분산의 16.4%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공격조절의도에 이어서 두번째로 높은 설명력이었다.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와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공격조절의도도 긍정적이었다. 이는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가 공격조절행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K-PCS와의 상관관계에서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가 유일하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절주 행위 도구(박인혜와 김윤경, 2010)와 청소년의 공격성 측정도구(장숙과 안혜영, 2018)와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가 공격조절행위를 예측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해 볼 때, 중학생의 또래 관계에서 공격조절행위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를 갖도록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소년은 아직 자기평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신념과 결과평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장숙과 안혜영, 2018). 이에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위 신념과 결과 평가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중학생의 독특한 정서·행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주관적 규범은 공격조절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부과하는 사회적 압력을 중학생이 자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주관적 규범 요인은 고유치 3.92, 총 분산의 16.32%를 설명하였으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공격조절의도와 0.03%차이 밖에 나지 않아 태도와 마찬가지로 공격조절행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 통제, 공격조절의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압력을 부과하는 집단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구로 규정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 공격성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나 공격조절행위 교육 프로그램에 이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에 부모님과 친구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PCS(박인혜와 김윤경, 2010)와 직접·간접적인 측정방법의 주관적 규범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주관적 규범이 공격조절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타당도가 높은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지각된 행위 통제는 공격조절행위를 하게 될 때, 중학생이 지각하는 쉬운 정도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지각된 행위 통제와 K-PCS(박인혜와 김윤경, 2010)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각된 행위통제가 공격조절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통제 신념은 내적일관성Cronbach's α .61, 반분 신뢰도 .52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또한 통제신념의 수렴타당도(집중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중학생이라는 발달단계가 아직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이므로, 여러 상황에서 생기는 공격조절행위를 능동적으로 쉬위하거나 어려워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중학생이 이를 표현해 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 값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재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공격조절의도는 공격조절행위를 할 때 얼마나 자발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의사 정도를 나타낸다. 공격조절의도는 직접적인 측정방법과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요인분석에 모두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각각의 고유치는 3.95, 4.02로, 총 분산은 16.47%, 16.73%를 설명하였으며, 두 방법 모두에서 공격조절행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행위 이론 관련 연구들은 메타분석을 통해 의도와 행위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하였다(손영근과 이병관, 2012). 본 연구에서도 공격조절의도가 공격조절행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짐으로써 공격조절의도가 공격조절행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도구 개발을 위한 청소년의 공격성 측정도구 개발 연구(장숙과 안혜영, 2018)와도 일치하였다. 공격조절의도와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지각된 행위 통제가 높을수록 공격조절의도가 높아졌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공격조절행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공격조절의도를 포함시켜 중재요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 개발된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직접적인 측정방법 .898, 간접적인 측정방법 .791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있으면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수는 2~6개로 간결하여 최종 문항 수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측정도구는 청

소년의 공격성 측정도구 개발 연구(장숙과 안혜영, 2018)를 토대로 이해하기 쉬운 긍정적인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중학생이 피로하지 않고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으며, 중학생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공격조절행위와 관련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격성 측정도구(Buss & Perry, 1992; 김지환, 2005; 이은아와 천성문, 2013; 하문선과 김지현, 2013; 장숙과 안혜영, 2018)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 도구는 한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공격조절행위 측정도구가 중학생의 공격성 중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측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 이론(2005)을 기반으로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직접적인

측정방법의 4개 요인, 간접적인 측정방법의 6개 요인으로 총 42문항이 개발되었다. 내적 일관성과 반분 신뢰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신뢰도가 높은 척도임을 확인하였고, 개별문항-전체 문항 간 상관관계수가 유의수준에 해당되어 문항의 변별력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개념적 기틀과 맞게 요인이 추출되었고, 공격조절의도가 분산의 양과 설명변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공격조절행위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공격조절의도가 포함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양한 연령별로 측정하거나, 공격조절행위의 정도에 따른 집단으로 나누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검증하는 추가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공격조절행위의 영향요인과 측정 도구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공격조절행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Appendix 1. 청소년의 공격조절행위 측정 도구: 직접적인 측정방법

- 상황: 누군가가 나를 놀릴 때, 나를 약 올릴 때, 나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

공격조절의도 도구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때리고 싶은 것을 참을 의도가 있다						
3. 놀리고 싶은 것을 참을 의도가 있다						
5. 욕하고 싶은 것을 참을 의도가 있다						
6. 싸우고 싶은 것을 참을 의도가 있다						
7. 친구 뒤에서 홍보고 싶은 것을 참을 의도가 있다						
8. 따돌리고 싶은 것을 참을 의도가 있다						
공격조절행위에 대한 태도 도구 (위 상황에서 내가 참는 것은?)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1. 싫다						좋다
2. 반대한다						찬성한다
3. 어리석다						현명하다
6.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7. 가치가 없다.						가치가 있다
8. 나와 관계가 없다						나와 관계가 있다
주관적 규범 도구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때려서는 안 된다						
3. 놀리면 안 된다						
5. 욕을 해서 안 된다						
6. 싸워서 안 된다						
7. 뒤에서 홍보를 봐서는 안 된다						
8. 따돌려서는 안 된다						
지각된 행위 통제 도구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때리지 않을 수 있다						
3. 놀리지 않을 수 있다						
5. 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6. 싸우지 않을 수 있다						
7. 홍보지 않을 수 있다						
8. 따돌리지 않을 수 있다						

Appendix 2. 청소년의 공격조절행위 측정도구: 간접적인 측정방법

- 상황: 누군가가 나를 놀릴 때, 나를 약 올릴 때, 나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

행위 신념 도구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놀리거나 흠을 보지 않고 참았어도, 마음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2. 싸우거나 친구를 빼앗지 않고 참았어도, 마음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3. 놀리거나 흠을 보지 않고 참았어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 것이다					
4. 싸우거나 친구를 빼앗지 않고 참았어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 것이다					
결과 평가 도구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2.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규범적 신념 도구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는 내가 화(공격)를 참는 것을 찬성하신다					
2. 어머니는 내가 화(공격)를 참는 것을 찬성하신다					
3. 담임선생님은 내가 화(공격)를 참는 것을 찬성하신다					
4. 친구는 내가 화(공격)를 참는 것을 찬성한다					
순응 동기 도구	매우 따른다	약간 따른다	보통 이다	약간 따른다	매우 따른다
1. 평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2. 평소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					
3. 평소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4. 평소 친구의 말에 대해					
통제 신념 도구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의 조언이 생각나면 화를 참는데 도움이 된다					
2. 학교규칙(정학, 체벌 등)은 화를 참는데 도움이 된다					
3.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화를 참는데 도움이 된다					
4. 누군가가 지켜볼 때, 화를 참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1. 교육부.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서울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2. 김지환. (2001). 폭력적 PC게임경험, 공격적 특성 및 자기 효능감이 공격의도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2, 61-78.
3. 김지환. (2005). 폭력적 PC게임의 경험과 공격적 성격특성이 공격행동과 공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4), 45-66
4. 노경섭. (2019). *(재대로 알고쓰는) 논문통계분석 : SPSS & AMOS*. 서울: 한빛미디어
5. 박인혜, 김윤경. (2010). 남성 직장인의 절주행위 측정도구 개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2), 156-168.
6. 서미정. (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성취감 : 장애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7. 손영근, 이병관. (2012).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인지적 행동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회지*, 56(6), 127-161.
8. 이아영, 김유미. (2015). 정서조절프로그램이 아동의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4(4), 519-536.
9. 이애령. (2004).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박사학위 논문]. 대전: 충남대학교 대학원.
10. 이은아, 천성문. (2013).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5(3), 477-495.
11. 이숙정, 박소연, 이희연, 유지현. (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 관련 학교 차원 보호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9(3), 633-652.
12. 이하연, 박주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8.
13. 임진섭. (2009). 청소년 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2SLS (2Stage Least Square Method) 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101-126.
14. 장숙, 안혜영. (2018). 청소년의 공격성 측정도구 개발. *한국아동간호학회지*, 24(4), 484-495.
15. 하문선, 김지현. (2013).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16. 허정목, 권민균. (2006).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아의 공격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32, 159-170.
17. Ajzen I. (2005).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New York, NY: McGraw-Hill Education (UK).
18.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 Buss AH,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
20. Coccaro EF, Zagaja C, Chen P, Jacobson K. (2016).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aggression, and impulsivity in a population-based adult sample. *Psychiatry Research*, 246, 255-260.
21. Dryfoos JG. (1988). Family planning clinics-a story of growth and conflict.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0(6), 282-287.
22. Farrell AD. et al. (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2), 179-204.
23. Fishbein, M., & Ajzen, I. (2010). *Predicting and changing behavior: The reasoned action approach*. New York: Psychology Press.
24. Francis JJ. et al. (2004). Constructing questionnaires based on the theory of

- planned behaviour: A manual for health services researchers. *Quality of Life and Management of Living Resources; Centre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http://openaccess.city.ac.uk/id/eprint/1735>
25. Lafreniere P. et al (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3*(2), 201-20.
26. Marsee MA, Kimonis ER, Frick PJ. (2004). *Peer conflict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27. Salovey P., & Sluyter DJ.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Gifted Child Quarterly, 43*(2), 108-110.
28. Wenar C. et al. (201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5th ed*. Seoul: Pakhaksa.